

# 코로나, 일용직 노동자에 더 가혹했다

### 7월 광주·전남 일용근로자 취업자 한 달 새 4000명 급감 올 상반기 실업 30~50대에 집중 ... 비임금근로자는 늘어

#### 호남통계청 발표 '7월 고용동향'

지난달 광주·전남 일용근로자 취업자가 전달보다 4000명 급감하면서 1998년 월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후폭풍이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일용근로자 취업자는 광주 2만6000명·전남 3만8000명 등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5.8%(1만2000명) 급감하고 전달보다는 4000명(5.9%) 줄어든 수치다.

지역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7월 7만6000명(광주 3만3000명·전남 4만3000명)에서 연말 8만1000명으로 뛰었고, 올해 1월 8만명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코로나19 고용절벽은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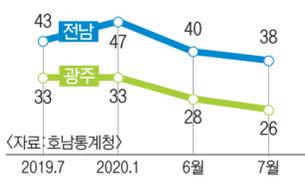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운데 광주·전남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2만6000명 늘어난 80만7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임시근로자 일자리는 31만5000명에서 30만8000명으로 1년 새 7000명 줄어들었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무려 1만명(광주 -3000명·전남 -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광주 17만3000명·전남 38만명 등 5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이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실업은 30~50대에 집중됐다. 연령대별로 광주·전남지역 실업자 수는 15~29세의 경우 1만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30~59세 실업자는 3000명(광주 1000명·전남 2000명)이 늘었다. 60세 이상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명 가량 늘었다.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늘었으나 비임금 근로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

#### ■일용근로자 취업자 추이 <단위:천명>



(자료: 호남통계청)

타났다. 광주 취업자 수는 7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0.3%) 늘었다.

고용률은 58.7%로 전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 농업어업 3000명(22.5%), 도소매·숙박음식업 1만1000명(7.3%)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건설업 6000명(-8.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4000명(-1.2%) 줄었다.

비임금 근로자 수는 9000명(5.2%) 증가한 17만3000명으로, 이 중 자영업자는 2000명(1.6%), 무급가족 종사자는 6000명(30.1%)이 늘었다.

일하는 시간을 놓고도 36시간 미만 취업

자는 5000명(3.6%)이 늘었는데 그중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무려 3만4000명(-5.8%)이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도 38.3시간으로 2.4시간 감소했다.

전남 취업자는 98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5000명(1.5%) 증가, 농업어업 위주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64.5%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산업별로 제조업 1만6000명(16.9%), 농업어업 1만7000명(8.3%),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3000명(1.4%) 늘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1만4000명(-4.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000명(-6.6%), 건설업에서 3000명(-3.0%) 줄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00명(1.5%)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3000명(-1.6%) 감소한 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9시간으로 1년 전보다 1.6시간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32.35 (+13.68) ↑ 금리(국고채 3년) 0.827 (+0.009)
- ↓ 코스닥 845.60 (-14.63) ↓ 환율(USD) 1185.30 (-0.30)

### 광주은행, 순천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지난 11일 순천시청에서 순천시(시장 허석·오른쪽)와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후원회장 송경식)에 순천인재육성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호반건설, 광주·전남 수해복구 성금 2억원

호반건설은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의 수해복구와 지역민들의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2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광주·전남지역 침수주택 복구와 시설 복구, 수재민 생필품 보급, 임시 대피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사에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지원금'을 전달하고,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 또 대파농가돕기 캠페인, 협력사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무역협회,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분부는 오는 28일까지 해외바이어 온라인초청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로 해외바이어 초청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일정기간 온라인을 통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13개국의 유력 해외바이어를 발굴, 지역별 4차례에 걸쳐 순차적 수출 상담을 발일 예정이다.

수출상담 일정은 10월 중순 신남방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자카타), 10월 말 중국 및 기타지역(터키·폴란드·루마니아·카자흐스탄), 11월 초 신남방 4개국(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캄보디아), 11월 중순 러시아(모스크바 등 3개

도시) 순으로 진행된다.

무역협회는 참가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바이어 수요 파악 등 사전준비를 통해 양질의 바이어를 발굴하고 매칭 적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비대면으로 상담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 상담 후에도 수출계약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로 성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런재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인적 이동이 필요한 바이어 초청행사 및 해외방문 시장개척단을 통한 대규모 화상 수출상담회를 기획했다"며 "광주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회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자동차산업 위기극복 간담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2일 광주 주력산업인 자동차분야 중소기업 대표들과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공단 이사장과 신재봉 ㈜현성오토 대표, 황호철 ㈜시그넷이비 대표, 최은모 ㈜무진서비스 대표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현재 광주 주력산업인 자동차업종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기업들은 공장가동을 저하에 따른 자금 지원과 수출해소를 위한 종합적 지원, 고용 유지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외 김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20억 상당의 침수피해를 입은 광학렌즈 생산업체 뉴바이오를 방문하는 등 지역 기업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도 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소재 부품기업을 집중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기업들에게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석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회장과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광주시와 정책간담회 광주시 중기협동조합 활성화·판로 확대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김석원)는 지난 11일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관련 후속조치 등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

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석원 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각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은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와 서창동 일대 수해피해 업체에 대한 대책마

련,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역제한 입찰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석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해피해까지 입었다"며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광주시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라고,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간담회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